

반려견 **안티워치** 패션이벤트

과작고의 노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백영주, 그녀가 (보그 걸) 독자들을 위해 안티워치의 이번 시즌 바깥 포인트를 살짝 공개했다.

1 파리, 밀라노, 뉴욕의 베스트 컬렉션 2 이번 시즌의 가장 핫한 액세서리는 화이트 벨트, 볼드한 플라스티크 액세서리, 장갑으로 커트된 크로스 락 벨트, 긴 장갑, 향기 필 물레를 수조 등등 3 전 세계 패션쇼 좌회차이라는 패션의 대대 도시 4 이번 F/W 시즌에는 하이브리드 컬러들이 많이 등장했다. 5 올 가을 시드세보고 심은 스타일은 시디 캐주얼 룩, 스텔라 맥카르티-를 필두로 시크함이 살아 있는 절묘 수트를 활용한 스포츠 룩이 많이 등장했다. 예나뎀 소재의 액세서리들을 같이 매치하면 더욱 좋다. 6 겨울이면 항상 화이트 컬러가 예뻐 보인다. 이번 시즌엔 갈색에게 어울리는 귀여운 디자인의 화이트 컬러 아이템들이 많이 등장했다. 7 예리 재킷 스타일의 여성스러운 슈즈는 늘 시고 싶은 아이템이다.



디자이너, 포토그래퍼, 스타일리스트 등 패션계의 스페셜리스트들에게 타진된 <보그 걸>의 미션은? 자기만의 시선으로 캐치한 이번 시즌 트렌드를 몰스킨 노트에 담아보라는 것! 그 노트를 지금 공개한다. 에디터: 김미주



spread your note

**하상희** 스타일리스트

보이시던 스모티 계주업을 가장 잘 소화하는 스타일리스트 중 한 명인 하상희 그녀가 말하는 이번 시즌 베스트 스타일링은 롱 스카트를 활용한 록, 플러워 프린트의 롱 스카트에 컬러풀한 니트 카디건을 매치해 예스나리하게 연출할 것을 권한다.

- 1 패기 장인들은 나의 베스트 아이템 매치의 눈빛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 2 올 가을, (모그) 강을 위한 스타일링 클래스, 어릴적 것 같지 않은 스타일, 컬러, 소재 이번 F/W 시즌에는 주저 없이 과감하게 믹스 매치에 볼 것. 3 스타일리스트인 만큼 F/W 발매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 패션성을 보여 컬러, 소재, 실루엣, 디테일 등에 관련된 것을 하나하나 노트에 기록한다. 이번 시즌 메인 컬러는 그레이, 소재는 니트와 강세이고, 예스나리 테자기 가미된 스타일이 많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번 F/W 컬러에 발색은 입고 싶은 옷들로 가득했다. 플러워 프린트의 롱 스카트와 울 코트, 롱 니트 카디건과 컬러풀한 브로치, 티셔츠와 레이어드한 튜브 톱 캄페스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4 최근에는 스트리트 감성이 물씬 풍기는 이미지 사진이 인기 있는 것 같다. 모델들의 얼굴과 모습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특히 런던 패션 위크의 스트리트 패션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련된 스타일이다. 다양한 스타일링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
- 5 나의 포트폴리오. 이번 시즌을 컨셉으로 작업한 첫 번째 스타일링 작업.



**권민경** 미아 스타일리스트, 디자이너

구두를 만들면 편안함과 가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미아 스타일리스트의 감리권 색사한 스타일링도 많이 이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그녀가 이번 시즌 새롭게 디자인한 슈즈들을 미리 공개했다.

- 1 이번 시즌 미아 스타일리스트의 이상적인 핏과 활력을 익스한 키워드면서 색사한 슈즈다. 피치 핏크 스웨이드에 함께 레아프린트를 익스한 구두는 사랑스러운 감정에 추첨하는 아이겐이다. 2 컬러 (미아) 일투어에게 동양한 것일 때러한 연을 대립의 반지 슈즈, 반지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면서 반지 슈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무리한 색과 실크 슈즈에 화려한 대립을 가미한 스타일링이 이번 F/W 시즌에 새롭게 등장했다. 3 내추럴한 가죽 질감을 그대로 살린 스타일링이 F/W 시즌의 메인 트렌드다. 브라운 컬러를 핏투로 내추럴한 질감의 가죽에 다양한 디테일을 익스한 컬러사한 스타일링이 바로 그것. 4 색사한 것이 가장 힙한 것이다. 특히 F/W 시즌이 되면 이 말이 더 맞아들어지는 것 같다. 이번 시즌 레오워드 프린트나 불라디 레드 컬러의 슈즈들로 스타일링 포인트를 주자.



**이윤정** 패션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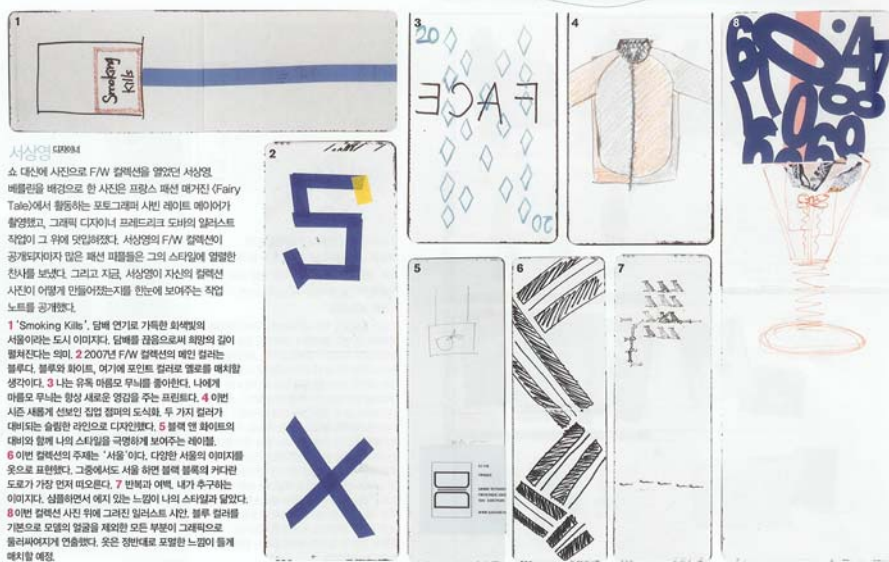
유난히 연말에 집중하며 디자인보다는 아날로그를, 캠페인보다는 노트를 좋아하는 패션 홍보 이윤정. 패션 홍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시즌을 준비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노트를 유심히 살펴보자.

- 1 내가 홍보하고 있는 데바구엘의 F/W 이미지를 대략적으로 먼저 정리한다. 대부분의 홍보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홍보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준비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으로 느낀다. 다음 시즌의 이미지를 먼저 알고 있으면 시즌 컨셉트를 받아들이기가 한결 더 수월하다. 2 F/W 시즌에 배드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블랙이다.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블랙의 인기는 계속될 듯하다. 블랙뿐만 아니라 그레이나 모노 톤도 많이 등장했다.
- 3 이번 시즌에는 한층 더 심숙해진 스카치가 트렌드다. 지난 시즌의 귀엽고 활력만 아니 캄피스에서 벗어나 시크한 데일링 수트가 강세를 이루고 있다. 4 질 스텔러트의 패션성을 준비하는 과정, 패션쇼의 준비는 먼저 쇼에 발표할 옷이 어떤 곳인지 체크하고, 옷에 맞춰 어울리는 모션을 정한다. 장소와 스타일 선택되는 물론 배경 음악까지 고려한다.



**소재의 모티브**

패션 에디터로 활약하기도 하고, 패션 사진을 찍기도 하는 만능 자유재민 소재의 그래픽이 이번 시즌 트렌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일러스트연하게 정리해주었다. 1 부속기 액세서리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 이번 시즌 부속의 특징은 북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북극(Boonie)라는 것. 소재는 새틴부터 벨벳까지 다양하게 등장했다. 1970년대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부속의 양기도 급상승 중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소재는 비록 레이스업 부속이다. 2 이번 시즌 레트로 스타일은 1920년대의 40년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크리스찬 디올의 누 흑과 재클린 케네디에게서 영감을 얻은 여성스럽고 클래식한 스타일이 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3 오피 빈데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 아이템이 대거 등장했다. 그중에서도 프리다 칼렉션을 등장한 것처럼 구불구불한 헤어의 테디 배어를 연상시키는 피 아이템들이 가장 핫하다. 이런 피 아이템은 옷보다는 액세서리로 제작할 것을 추천한다. 4 이번 시즌 컬러들은 바로 이전 2007년 F/W 시즌에 등장한 모든 컬러들을 한눈에 모았다. 각 컬러마다 핫한 아이템들을 모으면 컬러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5 지금부터 2007년 F/W 컬렉션 트렌드 분석을 시작. 6 이번 시즌 최고의 컬렉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발렌시아가다. 프레미 록 같기도 하고, 에스닉 록 같기도 하고, 로맨틱 스타일이기도 한 발렌시아가의 컬렉션은 패션 피플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스타일을 멋지게 보여주었다.



**서상영 (2008년)**

쇼 대안에 사진으로 F/W 컬렉션을 열었던 서상영 베를린을 배경으로 한 사진은 프랑스 패션 메가진 (Fairy Tale)에서 활동하는 포토그래퍼 사빈 레이트 메이어가 촬영했고, 그래픽 디자인이나 프레젠테이션 도구의 일러스트 작업이 그 위에 덧입혀졌다. 서상영의 F/W 컬렉션이 공개되자마자 많은 패션 피플들은 그의 스타일에 열광한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지금, 서상영이 자신의 컬렉션 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작업 노트를 공개했다.

1 'Smoking Kills', 담배 연기로 가득한 화석빛의 서울이라는 도시 이미지다. 담배를 끊음으로써 희망의 길이 펼쳐진다는 의미. 2 2007년 F/W 컬렉션의 컬러는 블루와 화이트, 여기에 로빈트 컬러로 옐로를 배치할 생각이다. 3 나는 유독 마름모 무늬를 좋아한다. 나에게 마름모 무늬는 항상 새로운 영감을 주는 프린트다. 4 이번 시즌 새로운 신발의 집합 장미의 도식화. 두 가지 컬러가 대비되는 슬림한 라인으로 디자인했다. 5 블랙 및 화이트의 대비와 함께 나의 스타일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레이블. 6 이번 컬렉션의 주제는 '서울'이다. 다양한 서울의 이미지를 오토로 표현했다. 그중에서도 서울 하면 필히 필화의 가리판 도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7 반복과 여백.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다. 심플하면서 예시 있는 느낌이 나의 스타일과 맞닿았다. 8 이번 컬렉션 사진 위에 그려진 일러스트 시간. 블루 컬러를 기본으로 모델의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그래픽으로 둘러싸이게 연출했다. 옷은 정반대로 포명한 느낌이 들게 제작할 예정.

**김미주** 패션 그래픽

복잡한 레이아웃보다는 심플한 스타일, 트렌디한 아이덴티티는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클래식 아이덴티티를 좋아하는 <보그 잡> 패션 에디터의 패션 노트.

1 크리스토퍼 케인의 작업 그라운드 데 가보송의 스타일링이 시원. 그가 이번 시즌 할 아이덴티티로 꼽은 건 남녀 모두 스타일링이 좋게 느껴지는 울스웨이드 슈즈다. 2 이번 시즌 발렌시아가에서 아주 특별한 스타일링이 등장했다. 1960년대 발렌시아가의 작품들이 그대로 이번 FWN 시즌에 등장한 것. 무려 40년 전의 스타일링이 지금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게 느껴지는 건 전통적인 유행과 트렌드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인 것 같다. 3 프랑스의 걸리시한 브랜드인 'Quilici', 일체의 디테일 없이 심플한 패턴과 실루엣으로 승부하는 핸드메이드 니트 브랜드다. www.quilici.com에 들어가면 이번 시즌 유행하는 다양한 니트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4 스페인의 스타일링이론 매거진인 (137), 이번 호의 이슈는 'Sweet, Soft & Subtle', 걸리시한 이미지부터 동화 같은 이미지, 해체로 시크하게 그려내는 화보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만날 수 있는 편지이다.



**박지영** 이벤트 마케팅 그래픽, 패션 그래픽

이벤트에 프로젝트의 패션 그래픽(포스터) 스타일링이론, www.marcnsoon.com의 바이어 등 1인 3역을 소화하고 있는 박지영. 깔끔하게 떨어지는 시크한 예시 작품을 좋아하는 그녀가 꼽은 이번 시즌 일러스트 베스트 6은 유행, 마가렛 하켄, 폴 데 가보송, 마크 베이 마크 체르니프스, 마르니, 드리스 반 노튼.

1 걸리시한 스타일링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퍼프 소매 블라우스에 튜브 핏티스를 레이어드하고, 스트라이프 민트색을 배치한 1960년대 유행가풍의 핑키팝 룩이 스타일링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트렌드다. 2 이번 시즌에 가장 핫한 트렌드는 바로 롱보이 룩이다. 쿼트이나 셔츠를 단트, 하이힐 블라우스에 얹어 양감과 강장 도자, 보타이를 배치한 시크한 롱보이 룩이 올 가을 베스트 룩이다. 최근 드디어 '커비 프린스 1호장'의 유행 때문에 롱보이 스타일링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 3 이블리기에 프로젝트의 예이름. 4 옛날 화보 사진이나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서 영감을 얻는다. 5 올 가을 프레임 룩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이번 시즌 발렌시아가는 이블리기를 활용해 보헤미안적인 프레임 룩을 선보였는데, 개인적으로는 클래식한 스물길 룩을 추천한다. 체크 스카프에 베레모, 캐주얼한 티셔츠와 핏팅한 이블리언 브로치를 배치한 전형적인 아이비리그 룩은 가을과 잘 어울린다.



**김혜연** 그래픽 디자인

행자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가 지금은 <행음> 매거진과 그래픽 티셔츠를 만드는 디자인 프로젝트 회사인 '행리먼트'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겸 패션 디자이너. 김혜연 그녀가 꼽은 이번 시즌 패션 트렌드와 그래픽 디자인을 소개한다.

1 연티크, 히피, 예스나함 스타일을 좋아하는 나의 노트 표지. 다양한 패턴을 사용해 사랑스러우면서 스나다운 느낌을 표현했다. 2 이번 시즌 트렌드 중 하나인 걸리시한 스타일, 귀여운 컬러 색감과 일러스트로 소녀 같은 느낌을 표현했다. 파리지엔 스타일링의 시크하면서 사랑스러운 스타일이 트렌드다. 3 파워풀한 여성과 강판대로 클래식한 스타일링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밀리터리와 영감으로 스포키 룩에 배치하면서 파워가 넘치는 스타일링 1000~3000년에 영감을 받은 고전적인 스타일링이 트렌드다. 4 디자인 트렌드의 느낌을 찾기 위해 다양한 그림을 그려본다. 상큼한 색채의 그래픽 그려보는 이미지가 디자인에 많은 도움을 준다. 5 옷이 형태, 패턴은 남성적이고 같이 있지만 그림을 깊게 있는 곡선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가미했다. 이번 시즌 남성복을 그대로 입은 듯한 이미지가 많이 등장했는데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

